고은 불교대하소설

무욕도량 만원

인담 우녀 대해 소석 두 소년행자 우식 만우에 이어 효영 명오 상수 상을 박월 길성 순풍이 더하였다. 거기에 다시 수월이 건너오게 된 것이다.

대중 14명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녀는 생식조차도 저녁은 건너뛰는 것으로 양식을 아껴야 하였다.

효영 일행들에게는 무욕도에 닻을 내린 뒤 며칠이 지나서 따라야하는 생식에 몹시 낯설었다.

특히 사공 박월 길성 순풍이는 아예 생식으로 한 움큼 받은 생쌀이나 물에 불린 보리를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따로 삼발의 약탕기로 죽을 끓여 먹으니 약탕기에 남은 약냄새까지 나는 죽을 먹다가 인담에게 들키기까지 하였다.

인담이야 그런 일을 못본척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생식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따로 죽을 끓이는 일이 그대로 이어지겠는가.

하루 지나서 우녀가 왔다.

"가마솥 하나를 몸 가운데 걸고 거기에 밥도 짓고 죽도 쑤어 만반 진수로 잡수시지… 어디 바다 한복판의 대장부들이 좀도둑인양 몰래 감초도 없는 약을 달여 먹다니요."

박월들이 이런 우녀의 말에 벙어리 밖에 될 줄 몰랐다.

"한번 생식을 해보셔요… 꼭꼭 씹으면 그 단물은 제호미(醍醐味)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성이 순풍이가 꾸벅 고개를 숙여 말하였다. 박월이 물었다.

"제호미가 무엇입니까?"

제호란 우유를 정제하는 다섯가지 과정 가운데 마지막의 제5 과정을 거친 가장 정밀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유미(乳味), 낙미(酪味), 생소미(生蘇味), 숙소미(熟蘇味) 그리고 제호미에 이르는 우유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이다.

이 맛을 천태종에서는 법화경 열반경에 적용하여 제호경(醍醐經)이라고까지 하거니와 그것은 그 경전들이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우유음식과 같다는 뜻이 된다.

이런 설명이야 인담이 거들어야 하였다.

그러자 어린 행자 우식이 냉큼 끼어들었다.

"불법도 이 맛 저 맛이 차별됩니까?"

"허어."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의 5경(五境)을 다 없애야 하는 공부에서 하필 맛을 말하다니요. 지금 우리는 맛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몸을 끌어가기 위해서 공부로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되었어!"라고 인담이 당돌하기까지 한 우식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린 행자의 뜻밖의 날카로운 말에 놀라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이렇게까지 줄줄 나올 수 있는 공부였던가. 인담 자신이 가르친 원효의 발심장(發心章)조차 다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나 순풍이가 돌아서서 혼자 투덜댔다.

"우리를 소나 말로 아는 모양이로다…."

이 투덜대는 사공 순풍이의 소리를 그들의 선주였던 효영이 들었다. 효영이야 진작 공부의 질반에 들어온 경지였다.

"자네가 소도 된 적이 있고 말도 된 적이 있지. 나도 또한 마찬가지였지."

"……."

"어디 자네나 나 뿐이겠는가. 이 섬의 어른들이나 동문 수학의 벗들이나 다 소였고 말이었지… 소와 말만이 아니라 갈치였고 조기였지… 신선이기도 하고 잡귀이기도 하였지… 누구나, 무엇이나… 다 그 무엇이 되어본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무엇들이 될 것이야…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수억만번이나… 이것이 과거이고 이것이 미래라 하겠지…."

"……."

"일러… 중생(衆生)이 그런 세계를 채워왔지… 중생이란 궁극적으로 다 부처를 이루면 없어지지… 그렇게 되면 부처라는 것도 없지…."

"……."

"내가 자네들과 함께 여기 스승을 찾아온 것은 그런 중생을 부처로 바꾸기 위함이겠지만 그러나 그 중생이 그대로 부처일 때는 그저 함께 사는 자비 속의 이웃이라는 뜻도 결치고자 함이었네… 그렇지. 중생이란 곧 공생(共生)이고 나 하나하나의 그것이 아니라 공(公)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이지…."

어느덧 인담이 이런 말을 막힘없이 하드름이나 긁어주어야지…", 우식은 "만우의 죽은깨나 크게 만들어 주어야지" 하고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효영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인담이나 우녀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효영 자신이 명오 상수와 세 사공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에게 바로 발심장 따위를 익히는 일도 없었다.

인담이 효영에게 말한 것이 있다.

"공부란 조사(祖師)들의 헛바닥에 서 나오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코에 닿는 것들이 다 스승이니 그 공부나 하며 실컷 놀아보아."

말하자면 공부에 어떤 틀을 만들어 그 틀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스스로 제 공부를 발견하도록 하는 자율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인담은 무욕도에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가 분주히 여기저기 살펴야 할 처지가 아니어서 모 심은 뒤의 논에 앉은 왜가리처럼 한가하기까지 하였다.

상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상수는 그의 누이 상을과 함께 온 것만으로는 이번의 무욕도 귀의가 흡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와 다른 형제들 그리고 종형제 재종숙부와 재종형제들과 노복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다. 송도 교외의 산야와 염전 들의 부(富)도 깡그리 나누어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벗 효영과의 동행이야말로 기쁜 일이었고 그런 기쁨에 누이 상을이 따라준 것이 더욱 기쁨을 곱절로 만든 터였다.

시간이 가면 옥뜸 냄새가 사그라들었다.

"오늘은 이만 하세… 그래도 자네가 잘 감당하고 있네."

"스님!" 하고 상수가 그 서늘한 눈빛에 깊은 감사의 뜻을 비춰내고 있었다.

"내일은 좀더 뜸자리를 늘려야겠네… 뜸질도 살림이라 부지런히 하면 늘어나는 것이겠지…."

"스님, 공부도 그래야겠지요."

"암… 자네가 익은 곡식이로세."

"황송합니다. 아직 뜨물도 들지 않은 죽정이입니다."

"죽정이도 겨는 남기는 법이니…."

인담은 별채의 간병실에서 나왔다. 늘

> 눈이 소리를 보는 것처럼
> 차의 맛을 귀로 듣는 것처럼
> 섬사람들의 마음은 몸이었다

"중생이란 共生이고 私 아닌 公에 이르는 삶이라네"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대해가 산등성이와 숲 바다에 내보내어 시키는 자연법이(自然法爾)의 공부가 훨씬 저 두 행자의 안목을 키운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박월 등의 사공들 세사람도 루똑똑한 표정, 씁쓰레한 표정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송충이를 씹은 것 같은 그 표정들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생식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굶이 입안이 싱거우면… 저 해안삼매(海印三昧)의 바닷물 한 모금 입에 넣으면 그것이 갖은 양념 아니겠는가" 라고 대해가 그들에게 너털웃음을 보내며 얼러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금맛이야 실컷 바다냄새로 대신하고 정작 수행자의 음식이야 무염식(無鹽食)이 으뜸입니다" 라고 우녀가 말하는 것이었다.

효영에게 몇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효영을 더없는 자랑꺼리로 삼고 있었다. 마치 재 속의 불씨가 슬슬 불기운을 내다가 마침내 시뻘겋게 되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닥친 눈송이 몇개가 떨어져 속절없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 소멸이 효영의 마음 속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우녀와 대해들은 진작 아래쪽으로 갔다. 이제 후원은 소석과 상을이 맡았고 어린 행자 우식과 만우가 소석을 졸래졸래 따르며 돕고 있었다.

후원의 일이라고 하지만 밭짓는 일과 찬꺼리 만드는 일이 없으므로 첫째 후원은 아궁이에 불 때는 일이나 생식 쌀을 불리거나 물 갈는 일 말고는 손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만우는 "후원에 오면 우식이 여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코에 닿는 것들이 다 스승이니 그 공부나 하며 실컷 놀아보아."

말하자면 공부에 어떤 틀을 만들어 그 틀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스스로 제 공부를 발견하도록 하는 자율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인담은 무욕도에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가 분주히 여기저기 살펴야 할 처지가 아니어서 모 심은 뒤의 논에 앉은 왜가리처럼 한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한가한 몸이 바로 조실이나 방장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일을 마친듯이 한가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조사가 되는 것인가. 인담은 최근 그의 곧은 앉음새에도 불구하고 한두번 삐끗거리던 허리에 며칠 동안 아픔이 있었다. 이제 나도 늙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에게 일이 생긴 것이다. 바로 상수가 앓아눕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침을 놓아야 하고 뜸의 심지를 태워주어야 하였다.

정작 그 자신의 요통 따위에는 침을 꽂거나 쑥뜸을 태우는 일이 없다가 새로 온 제자의 가슴 두근대는 정충(怔忡)을 치료하는데는 열심이었다. 다행히 몸의 지방질이 많지 않아서 애기(艾氣)를 잘 빨아들이는 편이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혈수(穴數)는 5개 이상을 넘기지 못하였다.

"천천히 낫게 해주지… 병앓는 것도 공부니까…."

그가 보기에도 상수행자의 정신은 거의 효영과 맞먹을 정도인데 몸이 허약한 것이 달랐다. 인담의 말은 그런 약자에의 격려만이 아니었다. 실지로 그가 개심사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의 한 선덕(禪德)은 늘 뒷방에서 앓아누워 있는데 한밤중의 어둠속으로 한줄기 빛살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그 뒷방에서였다.

그때 인담은 그 뒷방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 다만 그 절의 다른 스님에게 물어보았을 때의 대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노장 아픈게 아니여… 용맹정진하기 위해서 아픔을 불러들인 것이여."

그렇듯이 이 섬의 도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온몸으로 반기는 것은 파도소리였다.

오늘따라 먼 데 난바다의 파도소리까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아주 풍부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두 귀로만 들기에는 택도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눈으로 보아야 하였다. 관세음보살의 눈이 온세상 중생의 소리를 보는 것처럼. 아니 오묘한 차의 맛을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처럼.

과연 섬의 대중은 생식의 나날로 심신이 투명해지는 것이었다. 5경(五境)에 집착하는 바를 쉬는 중이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었다.

그림·조향숙

·고·객·만·족·홈·쇼·핑·

마 ー 트
LOTUS MART
밝은쇼핑, 맑은마음, 자연건강

*통신판매업 신고 제96호(불교용품전문점)

■ 주문 및 문의전화
●대표주문전화 02)3141-1011
●무료주문전화(전국)080-789-1011
●전용주문팩스 02)3141-1711
●전화 한통화로 편리한 쇼핑을 즐기시고 생활의 만족을 만끽하세요.

■ 주문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 소비자보호 및 A/S(고객센터) (02)342-4497
■ 대금결제는 온라인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주 : 연 마 트 이 희 재
☛ 온라인 현금결제시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확인후 즉시 주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주문시 성함과 송금시 성함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 우체국 : 013433-0046119 · 농 협 : 038-01-053152
· 국 민 : 069-21-0590-397 · 상 업 : 472-04-101306
· 신 한 : 328-02-105834 · 외 환 : 079-22-01784-5
· 한 일 : 008-040022-13-101 · 서 울 : 21508-5941507
☛ 신용카드 결제시는 먼저 전화주문 접수후 해당 카드의 전표를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표에 바인하신후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부쳐주시면 전표가 연 마트로 도착 즉시 주문 상품을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 발송방법 : 입금확인 및 카드승인후 택배나 등기소포로 3-5일 이내에 전국 어디나 무료로 받아 보실수 있도록 보내 드립니다
■ 취소 및 교환 : 주문하신 상품을 받아 보신후 이상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7일 이내에 전화주십시오. 취소·교환·반품 및 환불등 100% 철저한 사후조치로 완벽한 고객 서비스를 공개 약속드립니다.

밝은 쇼핑, 맑은 마음, 자연 건강

대자연의 정기를 가득 담은 생명식

◆불자생식의 효과◆
• 지연인이 된다
• 머리가 맑아진다
• 지혜가 생긴다
• 피곤하지 않다
• 피부가 고와진다
• 체중이 적당해진다
• 각종 성인병이 예방 및 극복된다

(한통지를 200cc냉수에 타서 흔들어 마실 수 있는 용기 제공)
• 지난 4년여 동안 신시대 저는 스님들께만 공급해 드렸던 생식을 이러 스님들과 불자님께 권하드립니다.
• 불자생식은 현미, 잡곡, 콩류, 야채류, 해조류, 뿌리, 구기자, 솔잎, 마, 과일 등 30가지의 원료를 동결건조시킴으로 인해서 쉬운 이러한 필기들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없이 제조되었습니다.
• 성인병, 다이어트, 어린이 이유식으로도 훌륭하며, 특히 수험생이 드시면 머리를 맑히고 기억력을 증진 시킵니다.
• 1포용량 7g
• 30포를 기본 단위로 판매

불자생식 LT-101 연 마트 특가 99,000

■ 佛子生食 대리점 · 취급점 모집
대자연과 신선인류가 가르쳐준 生食, 자연의 정기를 가득 담은 生命食, 몸과 마음을 바로 잡는 正食의 보급에 참여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특이한 불교관련용품을 찾습니다
불교에 관련있는 뛰어난 상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고 있으나 판매망이 미진하여 빛을 못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蓮 마트와 의논해 주십시오(문의전화 : 02-3142-4497)

호신진언
"옴마니반메훔"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면서 장수, 행복, 건강을 기원하십시오.
· 장인정신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은수저
· 함량 : 은 92.5%, 25온
옴마니반메훔 은수저 LT-107 연 마트 특가 48,000원

백제금동대향로

(축소형 복제품)

가격파괴
"국보중의 국보 최고의 걸작 완벽한 재현"
● 국보 제287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7세기 중엽에 제작된 백제금동대향로를 1,300년만에 완벽한 재현.
● 원형 그대로 재현된 복각품로는 귀하 가정의 가품과 품위를 격상시켜주고, 조상의 은덕을 받아 모든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보가 될것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엄정한 기술지원 및 감리를 받았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 복제품 LT-102 연 마트 특가 350,000원

자연의 김치 맛을 찾아드립니다 (Zeolite佛石)

각종 음식물 냄새, 냉장고 냄새, 독성물질까지 싹 제거 !
실험결과 입증

지오라이트란 학명으로는 불석(佛石), 그리스어로는 " 비등석"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정수필터, 화장품, 도자기, 난분, 바이오 BOX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광물입니다.
● 김치를 담구어 적당히 익힌 다음 지오라이트 김치독에 넣어 냉장고에 두시면 10여일 동안 바로 그맛, 그향기와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마치 스폰지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 흡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사용후 끓는 물에 넣어 헹군 다음 말린후 사용하십시오.
●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살아있는 지오라이트 김치독은 사랑받는 주부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겁니다.
* 연마트특가 상단 사진참조 * 용량 : 7, 4.5, 3, 2리터

귀하신 분들의 최고의 선물

"호신불은 자석팔찌"
기도! 건강! 해신!
●가운데에 호신불상, 양옆에 연꽃, 양끝에 옴마니반메훔 진언이 양각되어 있어 항상 기도도 하시고 건강을 체크하며 11개의 구슬에서 나오는 자기를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통, 생리통, 불면증, 정신집중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 은함량 92.5%
호신불 은팔찌 LT-108 연 마트 특가 70,000원

기도에서 건강까지 일석이조

● 몸안에 이상이 있으면 색이 변하는 옅은 몸의 불순물을 없애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 순은으로 제작된 팔주·단주 등으로 열심히 기도하시어 건강을 지키십시오.
● 어느곳에서나 염불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팔주 지압 반지는 건강증진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이중구조로 안쪽면에는 돌출된 침구가 있고, 바깥 돌아가는 면에는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지장보살을 양각되었음.

반지+팔찌주 LT-109	24,000	반지+팔찌 LT-110	21,000
단 주 LT-111	43,000	팔 주 LT-112	86,000

온갖 번뇌를 기도·등불·향으로 털쳐 버리십시오

1 Set 구성 : 청개구리 연일촛대 2개, 청개구리 연일향꽂이 1개, 청학동 향1통, 크리스탈 불상

● 연일 촛대로 등불 밝히시고 전통 향 내음에 젖어 푸르른 삶의 질을 살찌워 명상 수행 정진하십시오.
● 안산향은 전통적인 전래법으로 지리산 청학동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SET LT-113 45,000원